

경상감영 樂育齋의 교육과 문화 소통

장 인 진*

I. 머리 글	III. 교육 향유와 문화 소통
II. 낙육재의 교육 제도와 운영	1. 감사의 교육 관심
1. 교육 제도	2. 營學의 享有와 소통
2. 교육 재정	3. 재생의 교유를 통한 소통
3. 선발과 교육 과정	IV. 마무리 글

국문초록

본고는 경상감영 직속의 교육기관인 낙육재에 대하여 설립과 제도, 교육 과정을 구명하고, 운영에 따른 문화 소통 전반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守令·方伯들은 17세기 이후 지방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재 양성을 도모했는데, 경상감사 趙泰億이 낙육재를 設立한 것은 礪溪 柳馨遠이 제기한 營學중시 교육관의 수용이었다.

경상감사는 儒生 15명을 考試로 선발하여 1년간 居齋하면서 講讀·製述하게 했는데, 道內 10여 곳에 學田을 두고 2,000餘兩 규모의 연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齋生을 우대했음을 알 수 있다. 講讀에서는 載道 서책을 중시하고 製述에서는 純正, 雅健한 文體를 강조하였으며, 부정기적으로 庭揖禮, 鄉飲酒禮를 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계명대학교 고문헌연구소 전임연구원 / 전자우편 cij@kmu.ac.kr

경상감사의 인재 양성의 관건은 교비확충으로 귀결되었다. 낙육재 설립 초 趙顯命 감사는 영남 儒林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學田과 學規를 마련하였고, 19세기 초 尹光顔 감사는 講堂, 書庫, 寄宿소의 증축과 도서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구한말의 趙夔夏, 李金憲永 감사는 特捐金을 내어 낙육재 발전에 일조하였다.

낙육재의 齋生은 설립 이후로 450여 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營學 選士의 명예를 누렸고, 居齋하면서 讀書를 통한 先賢과의 의식 소통이 있었다. 또 監司와 齋生 및 齋生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詩文을 文集에 남겼는데, 글을 보면 자긍심을 갖고 상대를 존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로써 영남과 서울, 영남과 타도, 영남 지역 내의 문화 소통을 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낙육재는 1896년에 경상도가 남북으로 나누어 질 때 晉州에서도 낙육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입김으로 두 곳의 낙육재는 1910년 이전에 모두 철폐되었다. 낙육재가 철폐된 이후 大邱와 晉州에서는 교육 사업이 전개되거나 항일의식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 주제어

樂育齋, 營學, 齋生, 教育史, 監營의 教育, 경상감영, 지방교육, 문화 소통, 항일 의식

I. 머리 글

조선시대에서는 국초로부터 중앙에는 成均館과 四學을 설립하여 人材의 養成에 주력하였고, 지방의 州府郡縣에서도 鄉校를 설립하여 興學의 政策을 추진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金安國은 일찍이 경상감사가 되어 관내 70여 읍을 순회하면서 지나는 향교 마다 諸生을 초청하여 小學과 家禮 읽기를 권하는 등 학문을 장려한 바 있다.¹⁾ 또 書院은 조선중기 지방의 새로운 私교육 기관으로 등장하는데, 최초의 서원은 1542년(中宗 37)에 周世鵬이 창건한 白雲洞書院이었으며, 서원은 講學과 祀賢 기능을 갖고 있었다.

경상감영에서 설치한 낙육재는 人材養成과 文風振興을 위해 설립한 道단위의 官教育 기관이다. 1721년(경종 원년)에 경상감사 趙泰億(1675-1728)이 설립하였는데, 道內 재주 있고 뜻이 돈독한 선비를 선발하여 學業을 권장하고 문풍을 진흥하고자 大邱府의 南門 밖에 설치하였으며, 그 명칭은 『孟子』에서 말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에서 취한 것이다.

낙육재의 설립 당시의 규모는 강당 겸 기숙사 1채 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1730년(영조 6)에 趙顯命 감사가 낙육재를 중창할 때 左齋(講讀), 右齋(製述)를 증설하였고, 1808년(순조 8)에는 시설이 더 확장되어 그 구내에 강론을 하는 觀善堂과 도서를 보관하는 藏書閣이 추가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食堂, 庫子廳, 色吏房 등이 따로 있었다.

또 教育財政으로 연간의 세입과 支出 費目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재생들의 居齋生活에 필요한 비용의 일체가 官給이었음이 매우 주목된다. 낙육재가 감영의 교육 기관이었으므로 營學 또는 營齋라 별칭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06년에 철폐되었다.²⁾

1) 趙泰億, 『謙齋集』(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卷41, 「樂育齋節目序」.

2) 지금 대구향교 구내에는 30여평 남짓한 樂育齋라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낙육재 구성원으로는 慶尙監司가 교육책임을 지고 있었고, 慶尙道 都事가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고 있었다. 또 재생 가운데서 功令(直月) 1명을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재생을 檢督하게 하였으며, 專任教員을 두지 않고, 다만 監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도내의 名儒를 초빙하여 특강을 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낙육재에 선발 및 居齋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450인 이상 밝혀지고 있다.³⁾ 18세기 초반에는 李萬敷(息山), 鄭葵陽(篋叟), 李櫻(顧齋), 金聖鐸(霽山), 成爾鴻(翠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 거제했다기보다는 경상감사의 자문에 응하면서 낙육재 발전에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⁴⁾ 19세기 초반에는 金龍翰(念睡軒), 李鼎益(甘華), 蔡必勳(琴窩), 崔南復(陶窩), 李楨輔(寒松齋), 姜必孝(海隱) 등을 들 수 있고, 19세기 후반에는 張錫龍(遊軒), 許元棡(三元堂), 尹仁錫(一庵), 李柄運(兢齋), 蔡憲植(後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낙육재에 선발된 사람의 문집을 보면 대개 營學에 居齋한 사실을 영예롭게 여기고 있었다.

경상감영 낙육재의 연구는 지난 1978년에 필자가 발표한 「嶺南 樂育齋攷」가 처음이었다.⁵⁾ 그 후 낙육재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⁶⁾ 낙육재

전통교육을 수행하고자한 목적으로 1990년 10월에 건립한 것이다. 조선시대 道 단위 학교인 낙육재를 하위 교육기관인 대구향교에 설치한 것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나 윤리 의식과 충효 사상이 퇴색해진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통 교육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낙육재에서 편성한 『齋錄』(필사본), 『綱目講語』(필사본, 1895), 『庭揖講論錄』(필사본, 1898) 등에서 실 인원 244인이 居齋하였고, 文集이나 詩帖 등에서 200餘人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3종의 책은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4) 慶尙監營 편, 『嶺營事例』(필사본, 대구가톨릭대도서관 소장), 「樂育齋」條를 보면 낙육재에 선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종합해 보면 경상감사 조현명의 교육 제도를 수행하는데 자문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 5) 張仁鎭, 「嶺南 樂育齋攷 - 특히 圖書館의 機能과 그 嚆矢로써-」, 『圖書館報』 2, 대구시립도서관, 1978, pp.89-114.
- 6) 張仁鎭, 「慶尙監營의 樂育齋 教育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8, 계명한문학회,

소장 서책의 분석에 관한 연구⁷⁾, 낙육재와 관련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⁸⁾ 등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낙육재의 교육 제도와 교육 재정, 교육 과정, 교육 향유, 문화 소통 등에 대하여 구명해보기로 한다.

II. 낙육재의 교육 제도와 운영

1. 교육 제도

조선시대의 지방교육은 향교와 서원이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지방 향교의 교육은 해이해지고, 서원도 강학보다는 사현 기능에 치우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실학자 또는 지방관을 중심으로 교육 개혁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磻溪 柳馨遠(1622-1673)은 당시 지방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각 郡縣의 邑學(향교)과 서울의 四學을 1차 교육기관으로, 각 도의 營學과 서울의 中學을 2차 교육기관으로, 중앙의 太學(성균관)을 최고 학교로 하고, 능력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천거에 의해 진학하며, 교육비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⁹⁾ 즉 지방 교육 제도의

1992, pp.177-198.

7) 남권희, 「경상감영 간행본과 낙육재 소장서책 분석」,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2004, pp.285-320.

8) 채취균, 「조선후기 영남 낙육재 연구 -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6, 한국교육철학회, 2008, pp.281-305.

9) 柳馨遠, 『磻溪隨錄』(목판본, 경상감영, 1770), 卷9, 「教選之制」, 「學校事目」 참조. 『반계수록』은 유형원이 1652년에 起稿하여 1670년에 완성한 자료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678년 6월 20일에 前參奉 裴尙瑜가 『반계수록』의 내용 가운데 田制, 兵制, 學制 등 7조목을 시행하도록 상소한 일이 있고, 1741년 2월 23일에는 前承旨 梁得中이 經筵에서 『주자어류』 대신 『반계수록』을 강하도록 상소한 바 있다.

단계를 ‘邑學(향교) → 營學(감영) → 國學(성균관)’으로 제도화 하고자 하였으며, 그 가운데 營學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 시기에 경상도의 樂育齋와 전라도의 希顯堂,¹⁰⁾ 평안도의 瞻學庫¹¹⁾ 등은 당시 營學을 중시하던 교육의식이 반영되어 설치된 지방의 장학 내지 교육 기구라 할 것이다.¹²⁾

趙泰億은 경상감사로 부임한 후에 경상도가 예로부터 人才의 府庫로 칭송되어온 사실을 주목하고, 각읍을 순시하였으나 학습풍토가 해이하여 人材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1721년(경종 원년)에 낙육재를 설립하면서 “한道の 士氣를 일으키는 까닭은 英才를 기르는 데 있다. 이는 진실로 監司된 자의 책임이니 가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關西의 瞻學庫의 規例를 취하여 樂育齋를 설치하고 學田을 두었으며 또 米穀, 奴婢, 器皿 등을 내어서 공양하는 여러 선비의 財物로 삼았다.”¹³⁾라 하였다. 장학재정을 마련하게 된 데는 섬학교의 규례를 취한 것이다. 조태억이 경상감영에 낙육재를 설치하였으나, 설립 초기에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李萬敷(1664-1732)의 「樂育齋節目」에 의하면 “본 齋는 前輩가 創設한 것인데, 그 뜻은 비록 아름답으나 다만 뽑힌 사람은 都會에서 우등한 몇 사람뿐이니 樂育의 본뜻은 아니다.”¹⁴⁾ 하였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1730년(영조 6)에 趙顯命(1690-1752)이 경상감

10) 전라도의 希顯堂은 1700년에 金時傑 감사가 설립하였으나 1740년에 제도로써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장학과 관련이 있는 글은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이 적다.

11) 尹游 編, 『平壤續志』(목판본, 1730), 卷1, 22頁의 「瞻學庫」條를 보면 평안도의 瞻學庫는 1684년에 柳尙運 감사가 창설한 것인데, 養士하는 各齋에 需給을 관장하였다.

12) 한편 忠淸監營의 『錦營事例』(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38-65)에 보인 瞻學庫·養士庫와 咸鏡監營의 『咸營都事例』(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38-28)에 보인 興學庫가 있으나, 이들은 營學이 아닌 鄉校의 儒生 講學에 需給한 기관이었다.

13) 趙泰億, 앞의 책, 卷41, 「樂育齋節目序」, “其所以作一路之士氣 育一路之英才 是誠按臬者之責 其可不盡心乎哉.”

14) 李萬敷, 『息山先生續集』(목판본), 卷4, 10頁, 「樂育齋節目」, “本齋乃前輩所創 其意雖美 然只聚都會優等若干人而已 非樂育之本意.”

사로 부임하여 낙육재를 重創¹⁵⁾하였다. 그는 재임기간 중에 「勸學節目」과 學田을 마련하고 이 사실을 영조께 상소하여 『大學』, 『心經』, 『近思錄』 등 3종의 도서를 下賜받게 되었으니, 이 때 비로소 營學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1732년 3월에 檢討官 黃晟이 영조에게 진언한 내용을 살펴본다.

영남은 예로부터 이른 바 추로지향으로 일컬어졌는데 수 십년래에 土風이 망극(망애)하였으므로, 조현명이 도입한 후 즉시 사풍을 흥기시키는 일을 삼아 낙육재를 짓고 선비를 선발하여 입학시켰으며, 전답을 사서 나누어 주었으니 가르치고 기르는 데 방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臣의 뜻으로는 조정에서 다시 더 飭勵를 가한다면 스스로 마땅히 聳動하는 도가 있을 것입니다.¹⁶⁾

黃晟이 御前에서 경상감사 조현명의 교육의 방도를 주목하여 모범을 삼도록 진언한 것이다.

趙顯命 감사가 제정한 「勸學節目」에 의하여 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面學 → 邑學(鄕校) → 營學(樂育齋)’과 같이 進學 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⁷⁾ 이 점은 柳馨遠이 『반계수록』의 「教選之制」에서 제시한 교육 제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面學에서 향교(邑學)로 진학하는 것을 升補, 향교에서 낙육재(營學)로 진학하는 것을 升州라 하였으며, 진학생의 경우 黨色에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낙육재의 入學을 살펴보면 경상도내 각군의 守令들이 志行·才藝한 자를 選士하여 監營에 천거하고, 감영에서는 白日場을 열어서 試取하게 되는데 이를 選縣升州法¹⁸⁾이라 하였다.

15) 趙顯命, 『歸鹿集』(필사본), 卷19, 「樂育齋上樑文」(경술년 : 1730) 참조

16)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3월 23일(庚辰) 條, “檢討官黃晟曰 嶺南卽古所謂鄒魯之鄉 而數十年來 土風罔涯 故監司趙顯命到任之後 卽以興起土風爲事 造樂育齋 選士入之 買給田畝 教養有方云 臣意則自朝家 更加飭勵 則自當有聳動之道矣.”

17) 趙顯命, 앞의 책, 卷19, 「勸學節目」 및 「通諭道內士友文」

한편 柳馨遠의 ‘邑學(향교) → 營學(감영) → 國學(성균관)’의 교육 개혁안 가운데 營學(감영)에서 國學(성균관)으로 진학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1798년(정조 22)에 칠원현감 朴命燮이 求言傳旨에 응한 상소를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보인다.

教化의 근본은 儒學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은 오로지 軍備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文武가 모두 쇠퇴하여 시골에는 풍속을 바로잡을 만한 훌륭한 선비가 없고 고을에는 군사들을 격려할 만한 軍律이 없습니다. 그러니 列邑들로 하여금 선비를 뽑아 향교에 넣어 經書를 강론하고 의리를 궁구하게 하되, 특별히 스승이 될 만한 어진 사람을 택해 課程을 세우고 勤慢을 살피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날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록하기를 한결같이 鄉約의 규범대로 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 과연 經書를 잘 익힌 사람이 있을 경우 일체 公都會에 入格한 자의 숫자에 의거하여 縣에서는 巡營의 樂育齋로 올려 보내고, 巡營에서는 그 중에서 다시 뽑아 成均館으로 올려 보내어 뽑아 쓰는 데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 고을이나 道에서 인재를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시골에 있는 훌륭한 인재가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¹⁸⁾

이 상소의 내용을 보면 人才에 대하여 ①시골에서 추천하여 마을에서 뽑을 것(鄉學里選), ②고을에서 추천하여 監營의 낙육재로 올릴 것(選縣升州), ③감영에서 추천하여 성균관으로 올려 보내어 뽑아 쓰는 데 대비할 것 등 3단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소에 대한 備邊司의 견해는 “인재가 많은 영남지방에서는 반드시 풍문을 듣고 흥기하는 자가 있을 것

18) 選縣升州法은 중국의 鄉貢法을 취한 것으로, 위의 책, 卷19, 「樂育齋上樞文」에 “選縣升州 倣漢家鄉貢士之法”이라 하였다. 이 법은 지방 州縣의 장관이 인재를 선발하여 서울로 보내어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다.

19) 春秋館 편, 『朝鮮王朝實錄』(영인본, 1958), 正祖 22년(1798) 11월15일(甲戌) 기사.

이므로 따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수시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자연히 있을 것입니다.”²⁰⁾라 하였으나 英祖의 특별한 下教는 없었다.

2. 교육 재정

낙육재에서는 조현명 감사가 學田을 마련한 후로 해를 거듭할수록 토지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초반의 경우 대구, 경주, 밀양, 거제, 칠원 등지에 田畓이 10여 곳이나 되었는데, 면적은 약 12만 1천여 평이었다.²¹⁾ 여기서 연간의 租穗代 353.095石, 牟穗代 81.059石 등 총 435.004石의 수입이 있었다.²²⁾

學田 수입 외에도 監營의 보조금, 奴婢의 貢錢 수입, 蒜山倉의 鹽利 및 船價 수입, 防債錢 및 기타 수입 등이 낙육재의 세입 항목으로 잡혀 있었다. 이에 1807년(순조 7)을 중심으로 낙육재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40兩²³⁾이나 되었다.

그리고 1807년 당시 편성된 낙육재의 지출 비목을 살펴보면 齋生들에게 지급되는 주식비, 특별부식비, 紙筆墨代, 科擧 응시비와 齋生의 奴·馬 왕래시 여비와 식대 등이고, 나머지는 낙육재에 소속된 色吏·食母·庫子·冊匠의 급료 및 器皿價, 收稅할 때 路費, 도서구입비²⁴⁾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낙육재의 연간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발표된 바 있어서 논외로 한다.²⁵⁾

20) 위의 책, 같은 기사.

21) 이 외에도 1807년에 윤광안 감사가 비치한 김해의 蘆田 5結 58負도 있었다. 그런데 1899년 당시 낙육재의 둔토는 130餘石지기(畓의 경우 13만여평, 田의 경우 26만여평)나 되었다.(독립신문, 1899년 9월 30일자)

22) 張仁鎭, 앞의 「慶尙監營의 樂育齋 教育에 대하여」, p.185.

23) 위의 논문에 의하면 당시의 1兩은 租 1石, 牟 1石 또는 米 6斗였고, 1石은 15斗였다.

24) 앞의 『嶺營事例』에 의하면 1807년에 도서구입비 30兩을 신설하였다.

25) 張仁鎭, 앞의 「慶尙監營의 樂育齋 教育에 대하여」 참조.

3. 선발과 교육 과정

낙육재 齋生 선발은 관찰사가 매년 경상도내의 守令으로부터 추천²⁶⁾ 받은 인원을 監營 앞에 모아서 白日場을 열어 考試를 하였는데, 시험에 앞서서 儒生들의 庭揖禮를 받았고, 합격한 유생들에게는 낙육재에 鐘鼓樂隊를 불러 풍악을 크게 연주하고 기생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으며, 시험 등급에 따라 유생들에게 賞을 내렸다.²⁷⁾

낙육재의 선발시험 과목과 정원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經書의 疑·義와 文學의 詩·賦·表·策으로 30명을 뽑았는데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30명을 兩番으로 나누어 15명씩 1개월 간격으로 1년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학습하는 進退法을 취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진퇴법을 폐지하고 정원 15명을 詩·賦로 試取하여²⁸⁾ 1년간 무료 숙식을 제공하며 학습시켰다.²⁹⁾

낙육재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대부분이 居齋를 하였다. 그런데 합격하고서도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거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³⁰⁾ 이때는 차 순위 자가 거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경상도 유생 曹文弼의 경우, 그는 樂育齋의 選士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나, 응시할 당시 試幅에 쓴 이름자와 選士를 報告한 이름자가 서로 달라서 낙육재 養士(居齋) 명단에서 빼버렸다. 이에 尹鳳五가 다음의 시를 지었다.

26) 대구문화예술회관 향토역사관 소장 고문서 가운데는 慶尙監營의 甘結을 받은 ○○縣監이 鄕校에 다시 帖文한 내용의 문서가 들어 있다. 내용을 보면 “行縣監爲相考事 樂育齋選士白日場 五月十六日設行 營下抄擇之節 大中小邑 各有定數 精擇起送”이라 하고, 발행 연도는 辛卯(1831년?) 四月 二十五日로 되어 있다.

27) 영남문화연구원 편, 『嶺營日記·嶺營狀啓謄錄』,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p.114, 乾隆 17년(1752) 2월 27일 條.

28) 慶尙監營 편, 『嶺營事例』(필사본, 계명대동산도서관 소장), 「選士」條, “選士大邑五人 中邑三人 小邑二人式抄報矣 近年則 無大中小區別 而隨報試取詩賦參半 合取十五人 居接樂育齋”

29) 張仁鎭, 앞의 「嶺南 樂育齋 攷」, pp.89-114.

30) 위의 책, p.96.

隣驢不見借人乘 : 이웃 나귀는 남에게 타도록 빌려준 것을³¹⁾ 못보고
 禪磬何山飯後鳴 : 선원의 경쇠는 어느 산에서 공양을 들고 울리는가³²⁾
 可笑齋監文綱密 : 가소롭게도 齋監은 글 살핌이 빈틈없다고 하나
 不知劉向是更生 : 劉向이 更生³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네.³⁴⁾

이 詩를 사람을 시켜서 慶尙監司에게 전하니, 감사가 曠文楮를 낙육재에 居齋하도록 허락해준 것이다.

교육 과정 1년간에는 左·右齋에 기거하면서 독서·제술하도록 하였고, 齋生은 관찰사에게 강론 질의하였으므로 낙육재에 선발, 거재한 일을 매우 영예롭게 여겼다. 그리고 경상감사는 낙육재생을 선발할 때 또는 講學에 필요할 때 鄉飲禮를 행하여 학습 의욕과 문풍을 진흥시켰다.³⁵⁾

낙육재의 居齋生活에 있어서는 起寢에서부터 食事禮節, 몸가짐, 言行, 交際, 學習態度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功令의 책임 아래에 자치활동을 하였으므로 齋規가 매우 엄격하였다. 만약 齋生이 과실을 범할 경우에는 鳴鼓한뒤 功令 主宰하에 開坐하여 黜齋시키기도 하였다.

낙육재의 교육내용으로 講讀, 製述, 特講, 庭揖禮 등이 있고, 감영의 鄉飲禮에 참여하는 것과 心身을 단련하기 위해 봄, 가을로 팔공산을 유람하는 일이 있었다. 강독의 경우, 讀法을 규정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五敎³⁶⁾를 중시하고 爲學의 차례로 博學·審問·愼思·明辯·篤行을 강조하였으며, 이 외에도 修身·處事·接物의 요점과 呂氏鄉約을 중시하였다. 강독의

31) 『論語』, 「衛靈公」에서 孔子가 “그래도 예전에는 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타도록 빌려 주곤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미풍이 없어지고 말았다.(吾猶及有馬者借人乘之 今亡矣夫)”라 하였다.

32) 唐나라의 王播가 젊을 때 가난하여 揚州의 惠照寺에 가서 齋食을 얻어먹고 지냈는데, 중들이 왕과를 싫어하여 밥을 먹고 난 뒤에야 鐘을 쳤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33) 劉向은 漢나라 學者인데, 그의 本名은 更生이다.

34) 尹鳳五, 『石門集』(목판본), 卷3, 15頁, 「聞曹生文楮以試幅名字與選士所報不同 見拔於樂育齋養士之中 又無騎轉寄山寺寄此一絕」

35) 張仁鎮, 앞의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pp.177-198.

36) 五敎는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등이다.

교재를 보면 小學·四書·五經과 近思錄, 家禮, 心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書節要 등 주로 載道の 서적을 읽도록 하였고, 매일 초하루와 보름날 평가하였다.³⁷⁾

製述의 경우에는 經義에 근거한 純正, 雅健한 文體를 강조하고, 매 보름 단위로 제출한 내용을 평가하였다.³⁸⁾

特講의 경우는 향음례 등 행사가 있을 때 監司가 도내의 名儒를 초빙하여 齋生들에게 강의하도록 하였다. 한 예로 낙육재에 초빙되었던 鄭宗魯, 池德鵬 등의 문집을 보면 大學疑義, 近思錄, 心經, 太極說 등을 강의했음을 알 수 있다.

庭揖禮는 監司가 자리에 들면 齋生들이 뜰에 들어와서揖을 하게하고 監司는 서서 인사를 받음으로써 선비를 禮로 대한다는 뜻이 담긴 행사이다.³⁹⁾ 일찍이 退溪 李滉이 「四學의 師生에게 諭示하는 글」을 보면 學宮에서는揖禮를 행한 후에 강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⁰⁾ 낙육재 유생의 경우 매일 초하루와 보름날 師席(監司) 앞에서 예를 행하였으며, 이때 監司로부터 강독 및 제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정음례에 대해서는 1898년에 嚴世永 감사가 행한 것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행사 당일에 師席(경상감사), 副師席(대구군수), 直月(대구부주사)이 등장하게 되면 齋生 중에서 東班首, 西班首, 執禮, 讀法, 東曹司, 西曹司 각 1명을 뽑아 諸生 11명과 함께 '位 → 階 → 堂'의 순서로 進退·升降하면서 講讀·問難 및揖禮·拜禮를 행하였다. 그러면 監司는 재생의 講에 대하여 考講한 후 우등자에게는 賞을, 열등자에게는 罰을 내렸

37) 낙육재 編, 앞의 『綱目講語』에 의하면, 성적은 通, 略, 粗, 不 등 4등급으로 평가하였다.

38) 성적은 一上, 一中, 一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 次上, 次中, 次下 등 12등급으로 평가하였다.

39) 李肯翹, 『練藜室記述』(연활자본, 1912), 別集, 卷9 「官職典故」 참조.

옛날의 규례에서는 儒生들에게 시험을 보일 때 館閣의 당상관이나 監司 등이 의자에 앉으면 儒生들이 뜰에 들어와서 절을 하게 하였는데, 정음례는揖을 하게하여 선비를 예우한 것이다.

40) 李滉, 『退溪先生文集』(목판본), 卷41, 36頁, 「諭四學師生文」.

다.41) 이러한 예절교육을 통하여 齋生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鄉飲禮(鄉飲酒禮)는 主人과 賓이 禮로써 酒宴을 함께 즐기는 예절이다. 主人이 賓, 衆賓 등을 선임하여 매년 음력 10월에 漢城府, 各道 등에서 시행하였는데, 年老한 사람과 有德한 사람을 높이고 禮讓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42)

경상감영에서 주관하는 鄉飲禮에서는 낙육재 유생들이 동원되어 禮를 행하였다. 이 행사에 마칠 즈음에 司正을 맡은 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데서 향음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러러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옛날의 제도를 따라 禮敎를 숭상하여 지금 鄉飲酒禮를 거행하게 된 것은 오로지 飲食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릇 우리를 어른과 어린이는 각자가 서로 勸勉 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안으로 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 鄉黨에 친밀하며, 서로 訓告하고 서로 教誨하여 혹시 과실과 나태함으로써 그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하시오.43)

향음례를 거행하는 것은 술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勸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안으로 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 鄉黨에 친밀하며, 서로 訓告하고 教誨하는데 있었다.

영남지역의 鄉飲禮는 退溪 李滉이 처음으로 열었다고 하는데,44) 경상감

41) 張仁鎭, 앞의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pp.188-192.

42)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鄉飲酒儀 篇 참조.

43) 樂育齋 편, 『訓辭』(필사본), “仰惟國家 率由舊章 崇尚禮敎 今茲舉行鄉飲 非專爲飲食而已 凡我長幼 各相勸勉 忠於國孝於親 內睦於閨門 外比於鄉黨 胥訓告胥教誨 無或愆惰 以忝所生.”

44) 향음례와 관련하여 尹仁錫의 『一庵文集』(목활자본, 1908), 卷1, 12頁 「讀鄉飲錄有感」의 首聯에 “嶠南鄉飲 朔陶山 復得盤翁(註: 尹光顏 監司)啓此關”이라는 기록이 있다. 영남의 향음례가 陶山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낙육재에서 행한 鄉飲禮는 退溪 李滉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의 경우 1807년에 尹光顏 감사가 시행한 향음례가 역대 행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고 본다.⁴⁵⁾

끝으로, 재생의 여가 활동으로는 매년 春·秋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한 八公山 유람이다. 대개 일주일 기간으로 遊覽하여 개인의 心身을 단련하고 시를 짓는 등 齋生 상호간에 교분을 쌓았던 것이다.

III. 교육 향유와 문화 소통

享有的 사전적 의미는 ‘누리어 가짐’ 또는 ‘누려서 가짐’이다.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이므로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향유 계층’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낙육재의 경우 선발시험[選士試]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은 지방 士族으로서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 시험에 앞서 각 읍의 守令이 그 고을에 할당된 인원을 선발하여 監營에 천거하면 監司가 詩, 賦 등으로 15인을 선발하여 무료로 숙식제공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監營 교육의 혜택을 독립적으로 누리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교육 향유’가 되는 것이다. 疏通의 용어는 ‘뜻이 서로 통함’을 의미하지만 이 보다는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 행위’로써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점을 낙육재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타 지역 출신 監司와 영남 출신 齋生이라는 師承 관계가 성립되고, 다시 영남의 각 지역 출신이 한 곳에 모여서 공부하는 同門의 성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과 교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詩文을 짓거나 글을 남기는 등 일련의 행위에서, 또 후대인이 이들의 詩文을 읽고 감발할

45) 李楨輔, 『寒松齋先生文集』(목활자본, 1927), 卷3, 8頁, 「達城觀德堂行鄉飲酒禮序」에 의하면 행사 규모가 커서 大邱鄉校와 樂育齋에서 예행연습을 하였다. 主人은 尹光顏이고, 賓에 鄭宗魯, 介에 姜必孝, 僕에 李鼎揆·金驥燦·李泰淳이며, 三賓長에 李東汲·鄭東弼·姜泳이고, 衆賓에 李樹仁·南景義·姜世揆·金瑩·申冕周·朴慶九·崔廷鎭·金虎振·柳致明이며, 都執禮 李永運·執禮 李獻淳·贊禮 姜必祐·司正 徐有洛을 포함한 총 81인이 참석하였다.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소통’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⁴⁶⁾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향유와 문화 소통을 설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감사의 교육 관심

趙泰億 감사가 설립한 낙육재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10년 만에 황폐해 지자 趙顯命이 경상감사로 와서 1730년에 낙육재를 重創하게 된다. 그는 「勸學節目」과 學田을 마련하였으며, 낙육재 중창과 學規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당시 영남의 여러 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訥隱 李光庭(1674-1756)은 “낙육재를 修葺한 후에 閣下[趙顯命]께서는 한 道의 英才를 불러 모으고자 각 읍에 關文을 보내었고, 收聚한 齋儒를 都試하여 이튿날 詩·賦·疑·義의 과목으로 15인을 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考閱하여 선비를 올리고 물리친 것은 진실로 閣下께서 審簡하게 살핀 성의라 하겠습니까.”⁴⁷⁾하였다. 簾叟 鄭葵陽은 1731년에 조현명 감사에게 「通諭節目添補 二條」의 의견⁴⁸⁾을 내었으며, 息山 李萬敷의 경우 李敬儒가 지은 息山の 墓誌에서 “趙相國(顯命)이 영남의 관찰사로 와서 낙육재를 중수하고 선비를 기르는 학규를 마련할 때 先生[李萬敷]을 찾아와 여쭙어서 정했다”⁴⁹⁾고 하였다.

46) 문화 소통은 문화, 사회, 교육 등 배경이 다른 개인이 모인 집단에서 언어, 문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47) 李光庭, 『訥隱先生文集』(목판본, 1808), 卷5, 13頁, 「與趙方伯(顯命)」, “竊聞樂育齋已得修葺 閣下欲招延一路之英才 行關列邑 收聚齋儒於都試 冀日以詩賦疑義試取十五人 親自考閱 以升黜其士 誠閣下審簡之誠意也.”

48) 鄭萬陽·鄭葵陽, 『熏簾兩先生文集』(목판본), 卷8, 32頁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대개 諸生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白鹿洞規, 敬齋箴, 夙興夜寐箴 등을 외우며, 나란히 서서 相揖禮를 하고, 수업할 책은 책상에 두며, 단정히 앉아서 고개 숙여 읽어야 한다는 등, 諸生의 공부하는 자세를 다루고 있다.

49) 李萬敷, 『息山先生文集』(목판본, 1813), 附錄의 「墓誌」에 “趙相國之觀察嶺南也 重修樂育齋 以養士學規 來稟于先生以定焉.”

영남의 사류 간에도 낙육재의 설립과 교육이 주된 관심사였다.

1733년에 霽山 金聖鐸(1684- 1747)이 李光庭에게 보낸 편지에서 “監營의 關文 내용에는 齋儒 15인으로 하여금 公都會에 가서 시험을 치르며, 다음날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를 취하여 낙육재에 입학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자제들은 모두가 역질(마미)을 치르지 않아서 응시하지 않았습니다.”⁵⁰⁾ 하였다.

위 글을 종합해보면 老論 監司 趙顯命과 영남 南人의 여러 선비와 교분이 좋았음을 알 수 있다. 또 金聖鐸의 경우에는 조현명 감사가 그에게 請學하는 등 禮를 다했을 뿐 아니라,⁵¹⁾ 1737년에 그가 올린 葛庵 李玄逸의 伸冤疏가 문제가 되어 護逆罪로 국문을 받게 될 때도 조현명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伸救한 바 있다. 李萬敷, 李縵 등에게는 낙육재 설립 당시에 한 고을의 都訓長 등을 맡겨서 興學에 일조하게 하였다. 鄭葵陽의 경우는 그 門人錄에 조현명 감사가 수록되기도 하였다.⁵²⁾ 그리고 여러 사람을 조정에 천거한 일도 있다.⁵³⁾ 낙육재 설립으로 인한 문화 소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尹光顏 감사의 경우, 1807년에 낙육재에 觀善堂, 藏書閣을 신축하고, 도내의 名儒와 守令들을 초청하여 鄉飲禮를 행하는 등⁵⁴⁾ 낙육재 발전에 공헌하였다.

50) 金聖鐸, 『霽山先生文集』(목판본, 1893), 卷7, 18-19頁, 「與李訥翁天祥」, “營關內 使齋儒十五人 往試於公都會 冀日 隨所業試之 取其優者 入於樂育齋云 而鄙家子弟 皆未疫 不得赴試.”

51) 위의 책, 卷6을 보면 趙顯命 감사와 여러 차례 서신 내용이 있었으며, 附錄의 「年譜」, 庚戌(1730)의 ‘答監司豊原君趙公(顯命)書’에 “趙公書 有執贄請學之語 先生辭謝 還其所送紙物”이라 하여 趙監司가 霽山 金聖鐸에게 執贄를 청한 사실도 알 수 있다.

52) 烏川鄭氏 門中 편, 『橫溪書堂記』, 2006, p.49, 趙述立 편, 「堯籠兩叟同門錄」 참조.

53) 李光庭, 金聖鐸 등이다.

54) 郭溟翰, 『東湖遺稿』(필사본, 계명대등산도서관 소장), 卷2, 「鄉飲酒禮堂上序位」를 보면 앞의 註 45)의 名儒 외에 慶州府尹 朴宗羽, 寧海府使 柳焜, 永川郡守 徐有教, 淸道郡守 尹守翼, 榮川郡守 尹光垂 등이 僚佐로 참석하였다.

이 때 행사에 초청된 鄭宗魯의 문집에는 윤광안 감사에게 보낸 답서가 있다.

보여주심과 같이 낙육재를 修葺하고 선비를 모아서 講學을 하며, 겸하여 鄉飲의 禮를 행하신 것은 실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거룩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閣下가 아니었으면 위로 朝廷의 뜻을 근본으로 삼고 아래로 世道를 염려하며 斯文을 興起함으로써 舊習을 一變시키고자 自任하겠으며, 오랫동안 폐하고 빠뜨린 나머지를 그 누가 능히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⁵⁵⁾

이처럼 윤광안 감사는 영남의 교육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鄭宗魯를 비롯하여 영남의 많은 선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⁵⁶⁾

낙육재는 讀書堂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많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1732년 윤5월에 조헌명 경상감사의 건의에 따라 조정에서는 낙육재에 大學, 近思錄, 心經 등 3종을 下賜하였는데,⁵⁷⁾ 이 점은 낙육재에서 도서를 확충해야할 명분을 갖게 한 것이다.

현존 古書 가운데는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詩藪』가 있다. 필자가 목격한 이 책의 앞표지 뒷면에는 “乾隆二年 三月 日 / 閱等 備上 / 樂育齋”라

55) 鄭宗魯, 『立齋先生文集』(목판본), 卷9, 「答尹方伯復初」, “下示修葺樂育齋 聚士講學 而兼行鄉飲之禮 此實曠世之盛舉也 倘微閣下上體朝意 下念世道 以興起斯文 一變舊習自任 積年廢闕之餘 其孰能若是哉.”

56) 영남의 선비 崔南復은 그의 『陶窩先生文集』(목판본), 卷2, 3頁에서 尹光顏 감사에 대해 칭송하기를 “刺史 尹公光顏은 널리 배우면서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하였다. 이 외에 尹秉顯, 孫綸九, 李楨輔, 郭寅翰 등도 그들의 문집에서 칭송을 하고 있다.

57)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1732) 윤5월 29일(갑인)의 기사에 의하면 “경상감사 趙顯命이 상소하여 道內的 선비를 양성하는 規制를 진달하고, 또 인재를 추천하니, 비답하기를, ‘卿이 규정 세운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경이 선비를 추천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稟處하게 하고, 진조로 하여금 調用하게 하겠다.’ 하고서는 『大學』·『近思錄』·『心經』 등의 책을 樂育齋에 하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되어 있고 경상도관찰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경상감영에서 1737년에 간행하여 낙육재에 기증한 책인데, 閔等은 閔應洙 감사의 재임기간을 뜻한다.

낙육재 설립 이후 도서 확충에 있어서는 윤광안 감사의 노력이 지대하다. 앞서 언급함과 같이 그는 1807년에 藏書閣을 신축하여 많은 도서 수집을 하였으며,⁵⁸⁾ 임기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가서는 純祖로부터 『大學類義』 1권을 낙육재에 下賜하도록 하였다.⁵⁹⁾ 이로부터 후임 감사들도 도서 확충에 관심을 보여서 1857년까지 16차례에 걸쳐 700여 책을 새로 비치하였으므로, 1857년에는 낙육재에 총 1,397책이나 소장되어 있었다.⁶⁰⁾

이후로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낙육재의 교육비 확충에 관심을 보인 관찰사가 더러 있었다. 趙夔夏 관찰사는 1902년 가을에 捐廩 三百金을 내려서 藏書閣을 重修하게 하였고, 李鑑永 관찰사는 1903년 가을에 特捐金 一千金을 내려서 낙육재의 食費 補助, 研墨의 資金, 藏書閣의 修葺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⁶¹⁾

한편 경상감사의 출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1863년에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史補略』의 李是遠의 序에 의하면 “영남은 鄒魯의 고장이다. 조정의 崇文정책이 經籍을 중히 여기므로, 영남의 감사로 오는 사람치고 책을 한 권도 간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하고 이는 儒學을 진흥하기 위함이라 하였다.⁶²⁾ 1601년에 경상감영이 대구에 정착한 시기로부터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293년간 237명의 재임 감사 가운데 160여 종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⁶³⁾ 낙육재 설립 이후

58)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낙육재 고서를 살펴보면 윤광안 감사가 재임할 때 비치한 ‘丁卯(1807) 新備’라는 인장을 날인한 도서가 많이 있다. 윤광안 감사는 이 때 연간 지출비목으로 서책구입비 30兩을 처음으로 배정한 바 있다.

59) 張仁鎭, 앞의 「嶺南 樂育齋 攷」, p.95.

60) 남권희, 앞의 논문, p.303.

61) 蔡武植, 『訥軒文集』(石版本, 1964), 卷3, 「藏書閣修葺記」 및 「樂育齋稟目」 참조.

62) 柳鐸一, 「영남지방 출판문화 논고」, 세종출판사, 2001, p.265.

에는 嶺營에서 출판한 모든 책을 낙육재에 비치하였다. 간행본 가운데는 경상감사의 선대의 문집이나 族譜, 榜目 등이 포함되었는데, 구한말에 1만 권 가량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⁶⁴⁾ 이는 낙육재 재생들에게 그 가문의 홍보나 당색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2. 營學의 享有와 소통

營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監營의 학교로, 경상도의 경우 낙육재 교육을 의미한다. 營學에 선발된 사람을 選士라 하였다. 選士된 사람들은 낙육재에서 교육받는 사실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李柄運은 具達書의 輓詞에서 “警集을 손수 頒陟한 것은 誠孝를 다함이고, 英齋(樂育齋)에 入格하니 명예를 독차지 했네.”⁶⁵⁾라 하였으니, 낙육재의 위상을 알 수 있다.

柳文奎(1699-1768)는 1724년에 金東弼 監司에게 삼가 올린 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士子持身處女儔：선비의 몸가짐은 처녀 정조 지킴과 짝하는데
貞姿點辱豈非羞：곧은 자태에 욕을 당하면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巡相吹噓雖感祝：巡相이 잘한다고 주켜세워 줌에는 비록 감축할 일이지
만

63) 위의 책, p.258에 150-160여 종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趙焯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36-49에 의하면 경상감영관을 171종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대구부 간본 『月沙先生別集』(1720년), 평안도 순천군 간본 『增訂 挹翠軒遺稿』(1795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

64) 낙육재 도서는 구한말 낙육재가 철폐되기까지 1만권에 가까운 많은 장서를 소장하였으나(張志淵, 『韋菴文稿』, 國史編纂委員會, 1956, p.301.)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은 도서가 유실되고 현재 대구시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낙육재)에는 764책이 소장되어 있다.

65) 李柄運, 『兢齋文集』(목활자본, 1942년), 卷1, 「挽具竹窩(達書)」, “...警集手頒竭誠孝 英齋額擅名譽...”

嗟吾未及學而優：아! 나는 학문 너적하여 벼슬한 자에게는 미치지 못하겠네.⁶⁶⁾

낙육재에 선발해준 監司가 그에게 칭찬해준데 대하여 수업 받은 제자로서 겸양이 내포되어 있다.

百弗庵 崔興遠(1705-1786)은 그 외사촌 趙復慶(1719-1776)이 南泰良 감사 재임시인 1747년에 낙육재생으로 선발되어 居齋할 때⁶⁷⁾ 그 형 趙昇慶에게 서신을 보내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一初(趙復慶의 字)는 과연 낙육재에 나아갔는지? 이미 입학한 뒤에는 꼭 製述 공부에 전력할 필요가 없고, 모름지기 고요하게 침잠하고 씩씩하게 공부하는 氣象으로 좋은 글을 보아 궁구하고, 의심나는 곳은 지적하여 표시했다가 때때로 方伯에게 강론하고 질문해야 합당할 것 같은데, 그 과연 이런 의사가 있는지?⁶⁸⁾

製述보다는 講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과, 독서할 때에는 좋은 글을 보고 궁구하며 의심나는 곳에 대해서는 觀察使에게 강론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黃在瓚(1862-1919)의 문집을 보면 李金憲永 감사와 낙육재 諸生이 함께 읊은 詩에 대한 次韻詩 1수가 있다.

雪山珍重臘梅新：눈산은 진중하고 선달의 매화는 새로운데

66) 柳文奎, 「肅齋逸稿」(『屏湖世稿』, 석판본, 1937), 卷1, 1頁, 「謹呈金方伯(東弼)」

67) 이 서신 내용에서 “金校理의 返樞 행차가 대구 지경을 지나갈 것이라고 하니…”라 하였는데, 당시 金校理는 光陽 配所에서 1747년에 졸한 霽山 金聖鐸을 지칭하므로, 이 년도를 居齋年으로 볼 수 있다.

68) 崔興遠, 『百弗庵先生文集』(목판본), 卷2, 31頁, 「與趙國老(昇慶)」, “一初果就樂育齋耶 既入之後 不必專力於製工 須以沈靜莊敬氣象 看究好文字 指點疑處 有時講問於方伯似得 其果有如此意思否.”

和氣帶來滿座春 : 화한 기운이 찾아오니 좌중이 모두 춘풍이네
 大比三年門下士 : 3년마다 과거시험 치른 문하의 선비이고
 泰平萬世化中人 : 태평함 만세토록 사람들을 교화시켰네.
 詩心懶拙還爲病 : 시심에는 나의 게으름이 도리어 병이되는데
 天性愚庸却任眞 : 천성이 우매하고 용렬함은 본성대로 맡겨졌네.
 古館清晨招誨席 : 옛 학관에서 새벽에 일어나 師席의 가르침 받았으나
 疎才恨未炙熏親 : 재능 없어 친히薰陶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네.⁶⁹⁾

이 詩에서는 작자가 지난날 낙육재에서 독서할 때 이현영 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대한 흠모의 뜻이 들어 있다. 그의 문집에는 七夕 전날 밤에 이현영 감사와 낙육재 제생이 함께 韻을 내어 지은 詩도 1수가 들어 있는데,⁷⁰⁾ 이 또한 이현영 監司를 흠모한 詩이다.

李尙斗(1814-1882)는 1855년(철종 6)에 낙육재 酬唱詩의 序文을 남겼는데, 그를 포함하여 낙육재에 선발된 제생과 金學性 감사가 함께 읊은 詩集의 서문이다. 내용의 일부를 살펴본다.

을묘(1855) 가을에 金學性 공이 경상감사로 와서 國制에 의해 한 시대의 名碩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낙육재에 거재하게 하였으니 무릇 15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천년 아래까지 벗으로 숭상하겠고, 천리 밖까지도 상응하겠으니 하물며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뜻이 같고 道가 같음에 있어서야.⁷¹⁾

序文을 보면 同研의 벗으로서 정감이 배어난다. 金學性 감사와 함께 헤

69) 黃在瓚, 『梧堂詩文集』(석판본, 1963), 卷1, 「敬次李巡相與樂育齋諸生共賦韻」

70) 위의 책, 卷1, 「七夕前夜同李巡相及樂育齋諸益共賦」

71) 李尙斗, 『雙峯集』(목활자본, 1917), 卷3의 「樂育齋酬唱詩序」에 “乙卯秋 金公學性 按節南服 依國制選一時名碩 俾之居是齋 凡十有五人 顧念 千載之下有尙友焉 千里之外有相應焉 況生同一時 居同一壤 志同道同者乎.”라 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김학성 감사와 함께 읊은 「樂育齋松石金相公學性及諸賢共賦」도 실려 있다.

어질 때 읊은 시 외에도⁷²⁾ 그는 다시 후임 감사 申錫愚로부터 經學으로 선발되어 낙육재에서 거재한 적이 있다.⁷³⁾

철종 때의 李敦榮 감사는 일찍이 전라감사를 역임한 일이 있다. 完營의 營學이 되는 希顯堂은 전주에 있었는데, 당시 儒生 20인과 聯句로 지은 詩를 남겼다.⁷⁴⁾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1862년 정월에 그는 경상감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가 부임한 직후 낙육재에서는 1년간 居齋를 마치고 귀향하는 낙육재생 15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酬唱한 송별시를 모아서 『樂育齋詩帖』을 편성하였다. 李敦榮은 낙육재 여러 君子들과 송별을 아쉬워하면서 詩韻을 내어서 지은 시를 첫머리에 수록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1부씩 나누어 준다고 하였다. 동참한 낙육재생은 다음과 같다.

具祥春, 孫翊龜, 韓容佑, 李彙邁, 金普均, 田相在, 許栻, 申仁植, 呂渭龍, 金翰永, 朴天浩, 朴周大, 崔東運, 朴泰鎮, 曹秉善⁷⁵⁾

그 가운데 許栻(1828-1891)⁷⁶⁾의 詩를 살펴본다.

-
- 72) 위의 책에 「樂育齋松石金相公學性及諸賢共賦」가 있고, 金學性 감사가 지은 이 시의 原韻이 실려 있다. “自愧明旨不費身 席珍先數淨無塵 爲儒只在多文富有志能安樂道貧 蜀郡風餘三近俗 湘江酒作十分春 看今小會仍成別 南北其餘落 落人.”
- 73) 위의 책에 「謹呈繪園申相公(錫愚)七十一韻(時在樂育齋 而相公以經學取選 故有感而作)」이 있다.
- 74) 李敦榮 편, 『希顯堂聯句』(필사본, 1841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인본)에 의하면 李敦榮 전라감사를 포함하여 朴璟煥, 白河鎮, 金壽淵, 崔南復, 趙寅錫, 柳浩養, 梁致龍, 金基漢, 崔光圭, 許鏞, 崔鎮說, 白圭容, 李俊在, 柳德懋, 梁欄煥, 權宗煥, 梁泰煥, 高東翼, 南宮渾, 吳庠秀 등 儒生 20인이 참여하였다.
- 75) 필자가 수년전에 한 수장가로부터 李敦榮이 編한 『樂育齋詩帖』을 빌려서 복사한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동일한 필사본이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다만 영남대본에서는 16인의 거주지인 고을명 아래에 누군가가 居住洞名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의 曹秉善은 ‘字忠彦, 昌寧人, 癸卯生(1843), 居漆谷’인데 그 아래에 ‘松林里’를 추가 표기하였다. 칠곡 송림리는 石塘 曹世虞의 후손이 거주하는 마을로, 이 마을에 거주한 曹秉善은 字가 仁玉, 호는 寄軒으로 癸酉生(1873)이어서 同名異人이다.

名公有志下車初 : 이름 난 공께서 뜻 두고 부임한 때는
彬苑文風布化餘 : 흥성한 문풍으로 교화 퍼던 시기이네.
清榻幸蒙今日誨 : 맑은 자리에서 다행히 오늘의 가르침 받는데
英齋多讀古人書 : 英齋(낙육재)에서 옛 사람 책을 많이도 읽었네.

(하략)

작자는 이돈영 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대한 고마운 뜻과 지난날 낙육재에 거재할 때 독서를 많이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허식의 아들 許容斗가 아버지의 문집인 『三元堂文集』을 편집할 때 이 시를 미처 수집하지 못하였던지 문집에 누락되어 있고, 『삼원당문집』의 「年譜」, 辛酉(1861년) 條에는 ‘以行義 被鄉薦 道薦’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⁷⁶⁾

이러한 『낙육재시첩』을 통하여 李敦榮 감사는 경상도 및 전라도 유생간의 문화 소통을 활성화하는데도 일조했을 것이라고 본다.

尹光顏 감사는 앞서 언급함과 같이 재임시 낙육재에 觀善堂과 藏書閣을 신축하고 鄉飲禮를 개최한 일이 있어서 낙육재 재생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본다.

李楨輔(1766-1845)는 「觀善堂記」를 지었는데, 記文에서 “尹光顏은 충효의 가풍을 계승하여 학문에 연원이 있었다. 그래서 가르치는 데는 근본이 있었으므로 이처럼 불만했음을 말할 수 있다.”⁷⁸⁾라 하였다. 尹家默(1806-1890)은 그 再從孫 尹仁錫(1842-1894)이 낙육재 選拔試에 응시하러 갈 때 지어준 序文에서 “盤湖(윤광안) 老爺께서는 禮로써 덕망 높은 큰 선비를 불러들여 觀德堂에서 百拜禮를 행하고, 가장 이름났던 문학 선비를 선발하여 낙육재에 올렸다. … 지금 澄閣相公(관찰사)께서는 유학자

76) 許栻은 후일에 元栻으로 改名하였다.

77) 許元栻, 『三元堂文集』(목판본, 1915), 卷3, 15頁.

78) 李楨輔, 앞의 책, 卷3, 14頁, 「達城觀善堂記」, “尹光顏忠孝家傳學有淵源 故其爲教之有本 而可觀如是云爾.”

를 숭상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盤湖라 할만하다.”⁷⁹⁾ 하였다. 尹仁錫은 1872년에 金世鎬 감사에 의해 낙육재의 齋儒로 선발되었는데, 「遊樂育齋序」를 지어서 지난날에 선발되어 居齋하였던 그 先祖를 칭송하고 자신의 자긍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칭송의 글은 낙육재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 간의 문화 소통을 하는데 기여 했을 것이라고 본다.

시문 가운데 板上韻에 次韻한 것은 작자가 앞선 시대의 인물이나 어떤 사실을 수용하여 짓는 것이 되므로 소통의 입증이다. 閔在南(1802-1873)은 낙육재에서 鄉飲禮를 행한 후에 윤광안 감사의 板上韻에 次韻한 詩⁸⁰⁾ 1수를 남겼다. 이 사실에서 1807년에 향음례를 행한 후 35년이 지난 1842년경에 다시 향음례를 성대하게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⁸¹⁾

낙육재에 거재했던 사람의 문집을 보면 樂育齋의 新·改築과 관련한 글이 있다. 崔南復의 「樂育齋藏書閣銘」, 郭溟翰의 「藏書閣銘」, 孫綸九의 「觀善堂記」, 李楨輔의 「觀善堂記」 등은 1807년 尹光顏 감사 재임시에 지은 것이다. 金永銖의 「樂育齋記」(1888년), 「觀善堂修葺記」(1902년) 두 편은 金明鎭 감사 및 趙夔夏 감사 재임시에 지은 것이다. 監司가 신·개축한 建物에 대하여 이처럼 중요한 글을 지었으니 당시 監司로부터 文才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하겠다.

또 경상북도 嚴世永 감사의 청으로 호남인 李沂(1848-1909)가 지은 「樂育齋重修記」(1896년),⁸²⁾ 경상남도 曹始永 감사의 청으로 충청인 申箕善이 지은 「慶尙南道樂育齋記」(1900년)⁸³⁾ 등은 타도의 名儒가 지었다는

79) 尹家默, 『南豊集』(목판본, 1920), 「送仁錫赴選樂育齋序」, “盤湖老爺 禮延長德宏儒 行百拜禮於觀德堂 仍選最名有文學士 升之是齋…今澄閣相公 崇儒獎學 固可謂今盤湖也.”

80) 閔在南, 『晦亭集』(목활자본), 卷2, 「樂育齋鄉飲禮後次巡相尹(光顏)板上韻」

81) 위의 책, 附錄의 「行狀」에 “嘗至會園 李公景在爲考官 李曾爲嶺伯時 有育齋雅分 人勸見之 公曰 我豈自銜也哉.”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으나, 민재남이 낙육재에 거재할 당시 李景在 감사가 행한 것 같다.

82) 李沂, 『海鶴遺書』(국사편찬위원회, 1955), 卷8, 「樂育齋重修記」.

83) 申箕善, 「陽園遺集」(『韓國文集叢刊』 348, 민족문화추진회, 2005), p.210.

점에서 영남인과 타 지역인 간에 소통의 가교가 될 수 있는 글이다.

張錫龍(1823-1908)은 19세가 되던 1841년에 낙육재에 선발되어 거재 하였는데 매번의 課試에서 前列에 있었으므로 李景在 감사가 그 재능을 매우 중히 여겼다고 하였다.⁸⁴⁾ 1846년에 치른 文科 庭試에서 壯元으로 급제하고 判書의 직에 올랐다. 낙육재 교육에 힘입은 바 컸을 것이라고 본다.

낙육재에 거재했던 사람들의 명부를 『齋錄』 또는 『同研錄』이라 하였는데, 전자는 낙육재에 비치하면서 매년 명단을 수록한 것이고, 후자는 居齋한 사람이 개별로 후대에 그 사실을 남겨두고자 편성한 것이다. 李鼎益은 낙육재 同研錄의 後序를 지었는데 그는 ‘同研錄이라 하는 것은 文會의 例이다’ 하고 姓名과 居住地를 표기하는 것은 마음에 붙인 바를 잊지 않고 후일에 그 사람을 생각하기 위함이라 하였다.⁸⁵⁾ 『同研錄』은 현재 희귀한 편인데, 己丑年(1829)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居齋하였던 사람들의 「樂育齋同研錄」⁸⁶⁾이 있어서 살펴본다.

曹正基, 汝誠, 己亥生(1779), 夏山人, 玄風 池洞
成禹教, 立中, 癸卯生(1783), 昌寧人, 玄風 胎峯
李基洪, 顯行, 庚戌生(1790), 仁川人, 大邱 台邨
金顯周, 光伯, 壬子生(1792), 金海人, 河陽 松亭
韓公璧, 宗瑞, 甲寅生(1794), 谷山人, 慶州 金尺
申冕直, 敬老, 乙卯生(1795), ‘鵝洲人, 善山’⁸⁷⁾
成英駿, 冀汝, 丙辰生(1796), 昌寧人, 昌寧 院谷
李敏睦, 和瞻, 丁巳生(1797), 載寧人, 淸道 琴湖

84) 張錫龍, 『遊軒先生文集』(목판본, 1925), 附錄의 「年譜」 참조.

85) 李鼎益, 『甘華文集』(목판본, 1912), 卷4, 「書樂育齋同研錄後」.

86) 『文苑彙集』(필사본,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卷末에 수록. 이 同研錄은 경북 대 남권희 교수가 발표한 앞의 논문이 소개된 바 있다.

87) 위의 책에는 ‘鵝洲人, 善山’이 누락되어 있다. 筆者가 『崇禎紀元後四甲午(1834)式司馬榜目』의 進士試 2等 1人으로 입격한 申冕直의 명부에서 ‘字 敬老, 乙卯生’ 표기 同一人임을 확인하여 본관과 거주지를 추가하였다.

金益洙, 謙彦, 己未生(1799), 義城人, 知禮 龜尾
都鼎東, 穉和, 己未生(1799), 星州人, 河陽 校村
李以晦, 敬七, 庚申生(1800), 廣陵人, 柒谷 上枝
朴熙典, 文則, 癸亥生(1803), 密城人, 居昌 箭邨
李炳禎, 文郁, 癸亥生(1803), 固城人, 淸道 大谷
柳 燦, 燦汝, 甲子生(1804), 文化人, 大邱 錦沙
曹範奎, 士洪, 乙丑生(1805), 夏山人, 金山 鳳溪

위의 15인은 1829년 5월에 이임한 鄭基善 감사가 선발한 것이라 하겠고, 居齋는 그해 7월에 李勉昇 감사가 來任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名單은 姓名, 字, 生年, 本貫, 居住地까지 상세하게 수록하였으며, 최고령자와 최연소자 간의 연령차가 무려 16년이나 되었다.

監司와 齋生 간에 비록 교분이 좋았더라도 公的인 일에는 부탁하지 않은 것이 상식이다. 낙육재생 민재남의 행위를 살펴본다.

會圍(會試)에 이르렀는데 李公 景在가 考官이었다. 李公이 일찍이 嶺伯이 되었을 때 낙육재와 교분이 있었다. 사람들이 찾아뵙기를 권하니 公이 ‘내 어찌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하였다.⁸⁸⁾

會試의 考官이 지난날 師長이었으므로 남들이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私心を 배제하고 이처럼 거절한 것이다. 그의 마음가짐이 돋보인다.

낙육재 諸生 간에는 당색 불문하고 함께 거재하면서 聯句를 짓는 등 교분을 쌓아 왔다. 그러나 『樂育齋書冊目錄』(1807년)을 보면 “梅山集 6卷은 尾洞 金判書 大監主가 재임할 때 분부하여 다 태워버렸다.”는 기록이 나온다.⁸⁹⁾ 『梅山集』은 永川의 남인학자 鄭重器(1685-1757)의 문집인데, 1797년에 6책으로 간행한 것을 낙육재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나, 이 때 불

88) 閔在南, 앞의 책, 卷5 附錄, 鄭載圭 撰 「行狀」, “嘗至會圍 李公景在爲考官 李曾爲嶺伯 時有育齋雅分 人勸見之 公曰 我豈自銜也哉.”

89) 남권희, 앞의 논문, p.305.

태워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河範運의 「東征日記」의 1823년 10월 17일 條를 본다.

李聖老(載敏)가 말하기를 “鄭參議(重器)는 號가 梅山인데 永川의 名儒이다. 그의 文集이 達營의 樂育齋에 頒帙되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문집 가운데 葛庵 李先生의 祭文 등이 들어 있어서 낙육재 西儒가 金尙休 監司에게 모書하여 燒板하기에 이르렀다.” 하였다.⁹⁰⁾

낙육재 『書冊目錄』에 보인 김판서가 이 글을 통하여 金尙休임을 알 수 있고, 『梅山集』은 당시 낙육재에 거주하던 西儒(老論)가 문제를 제기하여 燒板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정치적 문제로 낙육재에 居齋하던 노론, 남인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⁹¹⁾

당파적 사건이나 이익 문제가 발생하면 同色の 당파끼리 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낙육재 재생들의 문집을 보면 대체로 거재할 때 黨色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을 선발해준 監司를 師長으로 대접하면서 酬唱하였다. 이점은 서울 출신의 監司와 지방의 才藝 있는 齋生 간에 교육을 통한 관심과 영남을 이해하는 등 문화 소통을 하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樂育齋의 齋生 중에서는 讀書를 하면서 先賢들의 詩文을 통하여 의식의 본받고자 한 것이 보인다.

당나라 李白은 49세에 「灞陽紫極宮感秋作」을 지었다. 五言 16句의 80자로 지은 것인데, 핵심 내용은 중반부의 4구가 되겠다.

四十九年非：마흔 아홉 해의 잘못은

90) 河範運, 『竹塢先生文集』(목활자본, 1932), 卷3, 13頁.

91) 남권희, 앞의 논문 p.295에 소개된 『樂育齋帖』(필사본, 1802년 : 일본 天理大 소장)이 있다. 이 책을 보면 尤庵 宋時烈의 祠版과 影幀이 淸道에 있던 것을 南公轍 감사 재임시인 1802년에 잠시 낙육재에 奉安하다가 湖中으로 반환한 일이 있었다. 이 때 尤庵 宋時烈을 崇慕한 詩를 지은 사람이 齋生 15인 가운데 朴壽亨, 鄭始煥, 李學燮, 李孚豹, 徐麟復, 徐駟輔, 徐樸, 曹翼明, 李邦根 등 9인이 참여하였다. 노론 성향 또는 노론을 긍정한 인물이라 하겠다.

一往不可復 :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네.
野情轉蕭散 : 야인의 마음은 쓸쓸하기만 한데
世道有翻覆 : 세간의 이치에는 번복이 있네.⁹²⁾

李白의 이 詩에는 지난 49년의 잘못을 거울삼아 인격과 학문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후대에 蘇軾, 黃庭堅이 和韻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周世鵬, 李滉, 柳成龍, 李安訥, 李民成, 李滉, 李象靖, 金興洛, 許薰, 曹兢燮 등이 次韻을 남겼다. 이 시는 대개 작자의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 지었는데, 선현들과의 의식 소통에서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退溪 李滉이 지은 次韻에서 이 대목을 살펴본다.

四十九年非 : 마흔 아홉 해의 잘못을
知之莫再卜 : 알았으면 다시 점칠 것 없네.
世患累牽掣 : 세상 환란에 견제에 묶여도
時光迭往復 : 세월은 번갈아 오고가네.⁹³⁾

李廷孝(1832-1917)는 49세가 되던 1880년에 낙육재에 선발되어 居齋하고 있었는데 이 때 『퇴계선생문집』에 있는 이 시를 보고 次韻하여 감회를 읊었다. 같은 대목을 본다.

知非⁹⁴⁾歲云徂 : 해 바뀌어 49년의 잘못 알게 됨은
來者追可卜 : 오는 미래에 돌이켜 점칠 수 있겠네.

92) 李白, 『分類補註李太白詩』(甲寅字本, 1435), 卷24, 16頁 참조. 이 시의 앞 구에 “娜從唐生決 羞訪季主卜”이 있다. 아래 李滉 및 李廷孝의 시에서는卜·復의韻으로 49년의 잘못을 강조하였다.

93) 李滉, 『退溪先生文集』(목판본), 卷1에 실려 있는 「石崙寺效周景遊次紫極宮感秋詩韻(석륵사에서 周景遊(世鵬)가 ‘자극궁에서 가을을 느끼며’라는 詩에 次韻한 것을 본받다.)」

94) 知非는 『淮南子』의 「原道訓」에 “蘧伯玉은 나이 50이 되었을 때 49년의 잘못을 알았다(蘧伯玉行年五十 知四十九年之非)”라는 故事에서 취한 것이다.

世道升又沉 : 세상의 도는 떠오르다 가라앉고
天運往而復 : 하늘의 운은 갔다가 돌아올 것이네.⁹⁵⁾

이 次韻을 통하여 이정효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본 후 퇴계 이황의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인격과 학문을 향상하고자 다짐한 것이라고 본다.

3. 재생의 교류를 통한 소통

李楨輔(1766-1845)는 1807년에 거재한 사람인데, ‘樂育齋의 觀善堂에서 여러 벗들에게 보인 詩’ 1수를 남겼다. 내용을 보면 낙육재의 여러 벗들과 교류하면서 有益함을 취해 眞趣를 얻고, 詩書를 읽으면서 講磨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였다.⁹⁶⁾

문체 가운데는 낙육재 재생들이 함께 짓는 聯句詩가 있다. 내용을 보면 예로부터 낙육재에 전해지는 버루를 주제로 한 金龍翰의 「樂育齋 古硯聯句」와 堂鼓를 주제로 한 李尙斗의 「樂育齋與諸賢 詠堂鼓聯句」, 그리고 낙육재를 주제로 한 趙善秀의 「樂育齋聯句」 등이 있다. 이러한 詩는 同研의 벗으로서 교분을 다지고자한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낙육재에서 함께 거재했던 柳文奎, 金光涉, 鄭約光, 朴昆墩, 郭明修 洪益瑞 등이 隱跡寺에서 공부하다가 石溪를 찾았을 때 읊시 1수씩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金光涉의 詩를 살펴본다.

自城行一舍 : 城으로부터 30리를 지나가니
瑟岳雨晴初 : 비슬산에는 비로소 비가 개었네.
野犢歸新牧 : 들판의 송아지는 새 목장으로 돌아오는데

95) 李廷孝, 『後松遺集』(목활자본, 1921), 卷1, 3頁, 「樂育齋讀退溪集次紫極宮感秋詩韻」
96) 李楨輔, 앞의 책, 卷1, 1頁, 「觀善堂示僉益」, “吾輩羣居樂育地 邇來事業做如何 相觀取益誠眞趣 更把詩書好講磨”

溪魚徙舊居 : 시냇가 물고기는 옛 살던 곳으로 옮겨가네
客遊三月久 : 객이 되어 노닐며 공부했던 3개월은 긴데
寺出半空虛 : 절은 높지 않은 허공에서 나오네.
欲問羅王蹟 : 나왕의 사적을 묻고자 했는데
空留板上書 : 헛되이 판상에 시를 쓰게 되었네.⁹⁷⁾

이들은 1724년에 金東弼 감사에 의해 선발되어 낙육재에서 거재한 사람들이다.⁹⁸⁾ 뜻이 맞는 몇 사람이 모여서 유람을 하며 시를 짓는 것은 그 나름의 소통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全奎煥(1832-1893)은 李敦榮 감사가 재임하던 1862년에 朴春晦, 金淵, 金台應, 朴遇尙, 李心學, 李承柱, 宋殷成, 蔣義淳, 朴海文, 李東璘, 宋應毫 등과 함께 居齋했던 사람이다. 그의 「贈樂育僉座書」의 내용에 실려 있는 5언 절구 1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暮抵三樂舍 : 해질 무렵 낙육재 당도하여
悵望八公山 : 시름겹게 팔공산 바라보네.
山深人不見 : 산 깊어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知是在雲間 : 바로 구름 사이에 있음을 알겠네.⁹⁹⁾

이 詩는 작자가 낙육재에서 독서를 마치고 귀향한 후에 함께 居齋하였던 낙육재생들에게 서찰을 보내면서 지었다. 서찰의 내용은 지난 날 팔공산에 유람하면서 읊었던 시를 모아서 粧帖하고자 하는 뜻을 전한 것이다. 시의 내용을 보면 작자가 지난 날 낙육재 재생들과 함께 유람했던 팔공산을 시름겹게 바라보니 산이 깊어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노닐었던 그 장

97) 柳文奎, 앞의 책, 卷1, ‘與樂育齋友人金和之(光涉), 鄭東瞻(約光), 朴士澄(昆瓚), 郭元德(明修), 洪子裕(益瑞)隱菴課餘訪石溪’

98) 柳文奎, 金光涉 등 6인은 1721년에 낙육재가 설립된 후 확인되는 최초의 거재생이다.

99) 全奎煥, 『小心亭自說』(초고본), 「贈樂育僉座書」

소 또한 구름 속에 가려지고 있음을 보면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또 낙육재에서 독서를 마치고 이별할 때 지은 「觀善堂偶吟」을 살펴본다.

今夜幽齋客 : 오늘 밤은 그윽한 낙육재의 손님
 明日故鄉春 : 내일은 고향에서 봄을 맞겠지
 莫言塵世事 : 티끌세상 일 말하지 말라
 苦樂總由人 : 고락이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네
 一毫生萬變 : 작은 일에도 만 가지 변화 일어나니
 世道正難行 : 세상 도리 진정 행하기 어렵네.
 白石清川上 : 흰 돌 위로 흐르는 맑은 물가에서
 無如養性情 :性情 기르는 것만 못하리.¹⁰⁰⁾

觀善堂은 낙육재의 강당 이름인데, 작자가 낙육재에 선발되어 1년간 공부할 하다가 居齋한 기간이 만료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이다. 同研友들과 헤어짐에 따른 아쉬움이 표현되어 있다.¹⁰¹⁾

1883년 5월에 趙康夏 감사에 의해 선발되어 이듬해 정월에 거재하였던¹⁰²⁾ 李柄運의 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江梅欲放雪天寒 : 강가의 매화는 피려하고 눈 내린 하늘은 찬데

100) 위의 책, 「觀善堂偶吟」

101) 그런데, 위의 초고본을 중심으로 출판한 全奎煥, 『小心亭文集』(목활자본, 1937)을 보면 「觀善堂偶吟」이라고 되어 있던 詩題를 「觀善偶吟」이라 고치고, “今朝觀善客 明日故鄉春(오늘 아침은 善客과 노닐고 있지만, 내일은 고향에서 봄을 맞겠지) 莫言塵世苦 苦樂總由人(티끌세상 고생 말하지 말라, 고생과 즐거움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으니.)”라 하였다. 이와 같이 간행본에서는 ‘堂’자를 빼고 五言絶句로 축약하였다. 따라서 1句의 “오늘 밤은 그윽한 낙육재의 손님”이 “오늘 아침은 善客과 노닐고 있지만”으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작자가 낙육재에 선발되어 책을 읽었던 사실이 상실되고 만다.

102) 이 때 선발된 15인은 李柄運을 포함하여 朴世明, 趙寅夏, 張龍甲, 芮大畿, 黃在基, 郭鍾健, 鄭鳳述, 田溶泰, 金斗河 呂昌會, 申泰魯, 秋桂燁, 禹昌植, 李柄洪 등이다.

卻把離懷脈脈看 : 문득 이별의 회포를 서로 정을 품고 바라보네
 三朔書燈守孤館 : 三個月 서재의 등불은 외로운 學館을 지켰고
 五更官角動羣巒 : 五更에 치는 관가의 鼓角 여러 봉우리 울리네
 城砧催臘家思倍 : 城의 다듬이 소리가 선달 재촉하니 집 생각 더하고
 驛路成泥客步難 : 역의 길은 진흙탕 이루니 나그네의 걸음 어렵네
 此別從今知隔歲 : 이 이별이 이제부터 해가 바뀔을 알겠으니
 帽山花月伴春闌 : 아미산의 꽃과 달은 봄과 함께 한창이겠지.¹⁰³⁾

함께 거재하며 공부한 벗으로서 선달이 되니 집 생각은 더하였지만, 막상 이별하는 순간을 맞으니 아쉬운 회포의 정이 배어난다. 낙육재에서 독서를 마치고 이별할 때 아쉬움을 표한 시문에 대해서는 居齋한 여러 사람의 문집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¹⁰⁴⁾

李東翰(1757-1822)은 1792년 7월 既望에 대구 금호강에서 蘇東坡의 「赤壁賦」를 연상하며 뱃놀이를 즐겼는데, 낙육재의 벗 安璜重, 朴亮源, 尹汝璜, 金敬喆, 李膺燮, 李之發, 金尙元, 金履德, 金宗益, 徐櫛, 鄭錫洪, 曹肅明, 都必宅, 徐麟復, 徐八玉, 曹象奎, 李英鎭 등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1812년 7월 既望에 다시 옛날 낙육재의 여러 벗들과 금호강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壬戌壬申歲不同 : 壬戌年 壬申年 해는 같지 않으나
 赤江千載錦江東 : 금강 동쪽에서 千年 전 赤壁 뱃놀이 했네.
 三盃美酒紅霞酌 : 석 잔의 좋은 술은 신선 먹던 流霞酒이니
 一葉扁舟白髮翁 : 백발옹으로 하여금 일엽편주 타게 하네.¹⁰⁵⁾

103) 李柄運, 앞의 책, 卷1, 「樂育齋與朴舜明趙允萬張慶三芮聖集黃周八郭可絢鄭致顯田杜甫金而五呂應天申聖瞻秋士沃禹進叔族兄士範臨別共賦」
 104) 李東翰의 「樂育齋送金景受之花山」, 芮大畿의 「樂育齋送友人歸觀」, 崔廷翰의 「樂育齋贈別諸友」, 黃在瓚의 「贈蔚山韓星村」, 「贈陝川李林下(相軫)」 등이 있다.
 105) 李東翰, 『砧山文集』(목판본, 1912), 卷1, 「壬申七月既望 與諸友泛舟琴湖」

그는 詩句의 말미에서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湖山이 변하지 않았으니, 더욱 지난 일을 생각하는 懷抱가 있다.”고 하였다. 낙육재 同研의 벗으로 오랫동안 소통하며 友誼를 다진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전북 만경 출신의 李沂는 ‘대구부에서 술회한 시를 金松堂(成喜)과 嚴素泉(柱廈)에게 보임’이란 詩를 지었다.

來此殊非索俸金 : 이곳에 온 것은 俸給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닌데
吾公眷遇意何深 : 그대의 예우가 어찌 그리 융숭할까.
大邱郡守頗通問 : 大邱의 郡守가 안부를 묻고
樂育齋生亦見尋 : 樂育齋의 재생들도 찾아오네.
望道有年終引退 : 修道한 지 수년이 되었지만 결국 물러나고
歸田無計却沈吟 : 田園으로 돌아갈 계획 없어 침울하게 시를 읊네.
如今嶺外俱爲客 : 지금 鳥嶺 밖에서 모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으니
直以安危托素襟 : 그 安危는 본래 쌓아온 素養에 맡기고자 하네.¹⁰⁶⁾

이처럼 낙육재 재생들이 남긴 글 또는 교류를 통한 글에서 이들이 영남 지역 또는 영남을 벗어난 지역의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하며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본다.

IV. 마무리 글

본고에서는 경상감영 직속의 교육기관인 낙육재에 대하여 설립과 제도, 교육 과정과 운영에 따른 문화 소통 전반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구명하였다.

17세기 이후 守丞 方伯들이 지방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낙육재는 1721년에 趙泰億 경상감사가 設立하고, 1730년에

106) 李沂, 앞의 책, 卷12, 「大邱府述懷 示金松堂(成喜) 嚴素泉(柱廈)」

趙顯命 경상감사가 重創하였는데, 이들은 磻溪 柳馨遠이 제기한 ‘邑學(향교) → 營學(감영) → 國學(성균관)’의 3단계 지방 교육 제도 가운데 營學의 기능을 수용한 것이었다.

경상감사는 도내 儒生 15명¹⁰⁷⁾을 考試로 선발하여 1년간 居齋하면서 講讀·製述하게 했는데, 道內 10여 곳에 學田을 두고 2,000餘兩 규모로 연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齋生을 우대했음을 알 수 있다. 講讀에서는 載道 서책을 중시하고 製述에서는 純正, 雅健한 文體를 강조하였으며, 부정기적으로 庭揖禮, 鄉飲酒禮 등을 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상감사의 인재 양성의 관건은 교비확충으로 귀결되었다. 낙옥재 설립 초 趙顯命 감사는 영남 儒林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學田과 學規를 마련하였고, 19세기 초 尹光顏 감사는 講堂(觀善堂), 書庫(藏書閣), 寄宿舍(左·右齋)의 증축과 도서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구한말의 趙夔夏, 李鑑永 감사는 特捐金을 내어 낙옥재 발전에 일조했던 것이다.

낙옥재의 齋生은 설립 이후로 450여 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營學 選士의 명예를 누렸고, 居齋하면서 讀書를 통한 先賢과의 의식 소통이 있었다. 그리고 監司와 齋生 및 齋生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詩文을 文集에 남겼는데, 글을 보면 자긍심을 갖고 상대를 존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영남과 서울, 영남과 타도, 영남 지역 내에서 문화 소통을 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낙옥재에서 居齋한 사람 가운데는 叔侄, 兄弟, 祖孫, 翁婿 등 가족 단위로 선발, 거재한 경우가 있는데,¹⁰⁸⁾ 소통의 입증이라 하겠다. 구한말 湖南의 李沂는 “大邱에 있는 樂育齋는 옛날 州에 설립한 學校와 같은 것이다. 해마다 學生 15명을 선발하여 本齋에서 거처하게 하고 그 茶飯 등의 비용은 관청에서 지불하였는데, 嶺南의 知名人士들

107) 설립 초기에는 1년에 30명을 선발한 후 1개월 단위로 15명씩 교대하면서 교육하였다.

108) 예컨대 蔚山의 尹秉顯를 포함하여 그 조카 尹家默·尹甯默과 曾孫 尹仁錫을 들 수 있고, 大邱의 李柄運을 포함하여 그 동생 李柄達·李柄迪·李柄遇와 사위 洪淵圭를 들 수 있다.

도 이 곳 출신이 많았다.” 하였으니, 낙육재의 인재양성 사업은 실로 컸다.¹⁰⁹⁾

낙육재는 1896년에 경상도가 남북으로 나누어 질 때 찜주에서도 낙육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입김으로 두 곳의 낙육재는 1910년 이전에 모두 철폐되었다. 당시 영남의 선비들은 낙육재의 철폐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¹¹⁰⁾

철폐 이후 大邱 낙육재는 1907년부터 1909년에 이르기까지 대구에 協成學校가 설립될 때¹¹¹⁾ 그 財源이 되었으므로, 낙육재 재산은 곧 이 학교

109) 申箕善, 앞의 책에 실려 있는 「慶尙南道樂育齋記」에도 낙육재는 “영조 때에 창설되었다. 큰 선비와 명성 있는 관직자가 이 재[낙육재]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니 교육의 功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英廟朝時所勸設也 碩儒名宦多出於是齋 教育之功 豈可誣哉)”라 하였다.

110) 張志淵, 앞의 책, p.301의 「樂育齋」條에 “凡古今書籍之藏 多至數萬卷 嶺北革罷之後 不知散落何處 齋亦毀撤 書籍之厄 一至此乎.”라 하였다.
또 南廷瓚, 『尼山集』(목활자본, 1955), 卷1에 「樂育齋歎」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山僻矣 麋鹿之遊 : 팔공산 골짜기에는 암수 사슴이 놀고
洛江深矣 魚鼈之遊 : 낙동강 깊은 곳은 물고기, 자라가 노네.
吁嗟乎 講樹之鳥 : 아아, 까마귀 알 깨면 효도하는 법 익히는데
噪兮 飛兮 何處遊 : 쪼고, 날아야 하지만 어디서 놀꼬.

111) 『皇城新聞』, 大韓隆熙元年(1907) 9월 26일자, 「協成學校趣旨書」에 의하면 이 협성학교는 당시 경상북도관찰사 李忠求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大韓隆熙二年(1908) 3월 18일자의 『해조신문』 기사를 보면 “남래인(南來人)의 전설을 들은즉, 경북관찰사 이충구가 일진회 사람으로 일인의 심복이 되어 학교를 건축한다 빙자하고 도내 낙육재 유물과 부중 각 공회와 공유물을 일일 매척하여 萬餘圓 가량인데 日人으로 더불어 七千四百圓으로 계약하였다 하고, 六千圓은 선급하고 거의 필역한 지경에 일본 목공이 불을 내어 七十餘間이 일시에 소실되고 남은 四千圓은 건물하고 학교가 폐지될 지경인 고로 부중 인민과 도내 신사들이 대단 격앙하여 방금 재판중이라더라.”하였다. 따라서 이 때 開校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蔡憲植, 『後潭文集』(石版本, 1962), 卷6, 附錄의 「家狀」에 의하면 “協成學校 起用舊樂育齋財源也 府君(蔡憲植)以居樂育齋久祥其土田由來顯委故又被選而出還收其土田於姦吏輩所詐占.”이라 하였다. 내용을 종합하면 1909년에 낙육재 출신인 蔡憲植이 주도하여 낙육재의 재원을 찾아서 協成學校를 설립하고 그는 校長에 선출되었다.

의 후신인 官立 大邱高等普通學校와 그 후신인 慶北高等學校로 이어졌다. 낙육재의 講學기능은 낙육재에서 거재하였던 蔡憲植 등이 1914년에 尙德閣에 講所를 설치하고 一鄉의 舍講을 주도한 바 있고, 이들은 다시 1918년에 文友觀을 창건하여 土習을 계승하고자 하였다.¹¹²⁾ 晉州 낙육재는 진주시 중앙동의 도립 진주의료원이 있는 곳에 설립되었는데, 1907년에는 낙육재에 義務所를 설치하여 國債 1,300萬圓을 상환하고자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¹¹³⁾ 齋生들이 동아개진교육회를 만들어서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고 한다. 1910년 3월에 경상남도관찰사가 晉州에 道立 實業學校를 설립하였다.¹¹⁴⁾ 이처럼 낙육재가 철폐된 이후로 항일 의식의 표출이나 교육 사업이 전개된 것도 문화 소통의 결실이라 하겠다.¹¹⁵⁾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31일(월)에 투고 완료되어

2011년 11월 14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1년 12월 6일(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12) 채헌식, 위의 책, 卷5, 「文友觀創建記」

113) 郭淵 편, 『俛宇先生年譜』(石版本). 十一年 丁未(1907) 條, “辭樂育齋義務所會長之任” 참조.

114) 『경남일보』, 1910년 3월 29일자 「수문쇄록」에 “實業設校, 本道 黃觀察은 當地樂育齋에 實業學校를 設立할次로 某某 紳士等과 協議 妥定하였는디 其 基本金은 原來 昌明學校 樂育齋 兩所有인 財産 一千餘圓과 地方費中으로 二千餘圓과 學部補助金 一千餘圓으로 合하여 成立할터이오 學徒는 各郡에서 募集하였는디 豫備科 三十名 原料에 三十名으로 選取하고 學年은 三年으로 定하였는디 各郡學生等은 此實業學校의 成立됨을 欣幸하여 應試함이 希望하는者 多數이라더라.” 하였다.

115) 이 글을 마치면서 筆者가 바라는 것은 그간에 낙육재가 조선후기 영남 최고의 학술의 전당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심하여 觀善堂, 藏書閣, 左·右齋 등의 樂育齋 시설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전통 윤리교육을 수행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게 하여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계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 慶尙監營 편, 『嶺營事例』, 필사본, 1책, 계명대동산도서관 소장.
 _____, 『嶺營事例』, 필사본, 1책, 대구가톨릭대도서관 소장.
- 郭溟翰, 『東湖遺稿』, 필사본, 3책, 계명대동산도서관 소장.
- 郭淵 편, 『俛字先生年譜』, 石版本, 2책.
- 金聖鐸, 『霽山先生文集』, 목판본, 1893, 卷6-7 및 附錄, 3책.
- 樂育齋 편, 『綱目講語』, 필사본, 1895, 1책,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齋錄』, 필사본, 1책,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庭揖講論錄』, 필사본, 1898, 1책,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訓辭』, 필사본, 1책,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 南廷瓚, 『尼山集』, 목활자본, 1955, 卷1, 1책.
- 柳文奎, 『肅齋逸稿』, 『屏湖世稿』, 석판본, 1937, 卷1, 1책.
- 柳馨遠, 『磻溪隨錄』, 목판본, 경상감영, 1770, 卷9, 1책.
 『文苑彙集』, 필사본, 1책, 영남대학교도서관 소장.
- 閔在南, 『晦亭集』, 목활자본, 卷2 및 附錄, 2책.
- 申箕善, 『陽園遺集』, 『韓國文集叢刊』 348, 민족문화추진회, 2005, p.210.
- 영남문화연구원 편, 『嶺營日記·嶺營狀啓謄錄』,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p.114.
- 烏川鄭氏門中 編, 『橫溪書堂記』, 2006, p.49.
- 尹家默, 『南豐集』, 목판본, 1920, 卷1, 1책.
- 尹鳳五, 『石門集』, 목판본, 卷3, 1책.
- 尹游 編, 『平壤續志』, 목판본, 1730, 1책.
- 尹仁錫, 『一庵文集』, 목활자본, 1908, 卷1, 1책.
- 李光庭, 『訥隱先生文集』, 목판본, 1808, 卷5, 1책.
- 李肯翊, 『練藜室記述』, 연활자본, 1912, 別集 卷9, 1책.
- 李沂, 『海鶴遺書』, 국사편찬위원회, 1955, 1책.
- 李敦榮 편, 『希顯堂聯句』, 필사본, 1841,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李東幹, 『姑山文集』, 목판본, 1912, 卷1, 1책.
- 李萬敷, 『息山先生文集』, 목판본, 1813, 附錄, 1책.

- 李萬敷, 『息山先生續集』, 목판본 卷4, 1책.
- 李白, 『分類補註李太白詩』, 甲寅字本, 1435, 卷24,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李柄運, 『旣齋文集』, 목활자본, 1942, 卷1, 1책.
- 李尙斗, 『雙峯集』, 목활자본, 1917, 卷1 및 卷3, 2책.
- 李楨輔, 『寒松齋先生文集』, 목활자본, 1927, 卷1 및 卷3, 2책.
- 李廷孝, 『後松遺集』, 목활자본, 1921, 卷1, 1책.
- 李鼎益, 『甘華文集』, 목판본, 1912, 卷4, 1책.
- 李滉, 『退溪先生文集』, 목판본, 卷1 및 卷41, 2책.
- 張錫龍, 『遊軒先生文集』, 목판본, 1925, 附錄, 1책.
- 張志淵, 『韋菴文稿』, 국사편찬위원회, 1956, p.301.
- 全奎煥, 『小心亭自說』, 초고본, 1책, 계명대동산도서관 소장.
- 全奎煥, 『小心亭文集』, 목활자본, 1937, 卷1, 1책.
- 鄭萬陽·鄭葵陽, 『堯簾兩先生文集』, 목판본, 卷8, 1책.
-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목판본, 卷9, 1책.
- 趙泰億, 『謙齋集』, 필사본, 卷41,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趙顯命, 『歸鹿集』, 필사본, 卷19,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蔡武植, 『訥軒文集』, 石版本, 1964, 卷3, 1책.
- 蔡憲植, 『後潭文集』, 石版本, 1962, 卷5-6, 1책.
- 崔興遠, 『百弗庵先生文集』, 목판본, 卷2, 1책.
- 春秋館 편, 『朝鮮王朝實錄』, 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58.
- 忠淸監營 편, 『錦營事例』, 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河範運, 『竹塢先生文集』, 목활자본, 1932, 卷3, 1책.
- 咸鏡監營 편, 『咸營都事例』, 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許元枳, 『三元堂文集』, 목판본, 1915, 卷3, 1책.
- 黃在瓚, 『梧堂詩文集』, 석판본, 1963, 卷1, 1책.
- 『皇城新聞』(1907. 9. 26자), 『해조신문』(1908. 3. 18자), 『경남일보』(1910. 3. 29자)
- 남권희, 「경상감영 간행본과 낙육재 소장서책 분석」,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2004, pp.285-320.
- 柳鐸一, 『영남지방 출판문화 논고』, 세종출판사, 2001, p.258 및 p.265.
- 張仁鎭, 「嶺南 樂育齋 攷 - 특히 圖書館的 機能과 그 嚆矢로써-」, 『圖書館報』

2, 대구시립도서관, 1978, pp.89-114.

_____, 「慶尙監營의 樂育齋 教育에 대하여」, 『漢文學研究』 8집, 계명한문학회, 1992, pp.177-198.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36-49.

채희균, 「조선후기 영남 낙육재 연구 -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 『교육철학』 36, 한국교육철학회, 2008, pp.281-305.

Cultural Communication and Education of Nakyukjae(樂育齋) of Kyungsang-Gamnyeong

Chang, In-jin

This study is to examine out the establishment and system, curriculum of the Nakyukjae, an educational organization under immediate control of Kyungsang-Gamnyeong(慶尙監營), and also to inquire into the cultural communication in general according to its operation.

The number of Suryeong(守令)·Bangbek(方伯) had interested in regional education since 17th century, and planned to nurture human resources. The establishment of Nakyukjae by Jo Tae-Eok, Kyungsang-Gamsa(慶尙監司), was an acceptance of Ryu Hyung-Won's view of education which focused on Younghak(營學, school of Gamyoung).

The Kyungsang-Gamsa selected 15 students of Confucianism by examination, had them stay in a boarding house, and had them read books and make a writing. We are aware that students of Nakyukjae got special treatment in that Kyungsang-Gamnyeong yearly budgeted about 2,000 Nyang (a unit of old Korean coinage) from 10 places of Hakjeon(學田) in the province.

The key to nurture human resources of Kyungsang-Gamsa was an expansion of educational budget. In the beginning of

establishing Nakyukje, Jo Hyeon-Myeong strengthened ties with Yeungnam Yurim(儒林), and arranged Hakjeon and drew up school regulations. In the early 19th century, Yun Kwang-An focused his efforts on the extension of a lecture hall, a library, a dormitory. Some of Gamasas stepped in with a large don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akyukjae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un Dynasty.

Nakyukjae had produced 450 students since it was established, who were covered themselves with honor for the selection of Nakyukjae and who had communication of consciousness with the previous great scholars by reading their books in the dormitory. Poetry and proses written by Gamsa and the students in their companionship contained in the collection of works, which showed that they had a pride and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 It means that Nakyukja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Yeungnam and Seoul, Yeungnam and other provinces, and within Yeungnam areas.

When Kyungsang-Do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in 1896, Nakyukjae was established in Jinju, too. However, the two Nakyukjaes were closed down forcedly by Japan before 1910. After that, other educational works were unfolded and anti-Japanese consciousness was expressed in Daegu and Jinju.

Key words: Nakyukjae(樂育齋), Kyungsang-Gamnyeong(慶尙監營), Younghak(營學), Nurture of human resources, Regional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Development of culture of communication, Anti-Japanese consciousness.

